



22일 보명선원 개원법회
각성 부산 화엄사 주지는 서울 종로 5가에 신홍사 부설 보명선원을 개원하고 22일 오후 4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02)2273-8484



일 주 문



'평화문화형성...' 발제 연설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은 18일 서울 다원호텔에서 열린 '평화문화형성 구축을 위한 종교의 역할'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연설을 했다.



내소사 등 순례 산행 모임
수경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는 29일 '능가산 내소사와 새만금 갯벌'을 찾아가는 제 33회 산행모임을 갖는다. (02)720-1654



대법당 현판식·점안 대법회
일도 세계불교박물관 무릉산 일도사 주지는 30일 오전 10시 극락보전 대법당 현판식 및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054)733-8786



지도부·임원 연석회의 열여
성기태 대불련 총동무회장은 1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총동문회 지도부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임도 스님 초청 법회 봉행
법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은 4월 2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전 조계종 교육원장 임도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경로당 활성화 평가 보고서
성운 서울 은평노인복지관장은 20일 2002년도 복지관 전체사업 운영보고서와 경로당 활성화사업 운영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창립 13돌 기념법회 봉행
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회장은 22일 서울 가회동 안국선원에서 창립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윤허 스님 동상 제막식
일면 남양주 봉선사 주지는 4월 8일 오전 11시 광동고등학교에서 윤허 스님 동상 제막식을 갖는다.



나라사랑 캠페인 서명운동
원행 나눔의집 원장은 4월 1일~3일 부산에서 '나라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화 상영 및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신도회장 파선 취임식
김대희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무료급식소 '불자익집' 운영위원장은 10일 대구사원련 운영회의에서 신도회장에 선출돼 25일 취임식을 가졌다.



서산대사 탄신 경축법회
도행 해남 대흥사 주지는 4월 10일 보살계 수계 및 서산대사 탄신 경축법회를 봉행한다. (02)735-1108



선원사 앞 논 연꽃심기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4월 5, 6일 오전 9시 선원사 앞 논에서 '논을 살리기 위한 연꽃심기' 행사를 연다. (032)933-8234



봉암사 석불전건 법회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장은 4월 13일 문경 회양산 봉암사로 떠나는 석불전건 법회를 봉행한다. (016)267-7945



보살계 대법회 봉행
원정 하동 쌍계사 주지는 4월 6일~8일 정기보살계 대법회, 대장경 정대불사 및 육조 봉찬회 총회를 봉행한다.



연합회 포교사 연수 실시
활안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22, 23일 대전 보현불교대 월대수련원에서 제1회 연합회 포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이웃종교인과 만남 행사
정우식 조계사정년회장은 25일 조계사에서 주선원 천도교 교화관장을 초청, '이웃종교인과의 만남' 네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북한 사찰 보존상태 대체로 나빠 기와 교체시기 지났는데도 방치

평양지역 사찰 둘러본 김봉건 문화재연 소장

김봉건(사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10~15일 평양지역 사찰을 둘러보고 왔다. 북한 사찰 단청 지원을 위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이사단의 자문 자격이다. 보현사, 광법사, 성불사, 용화사, 법운암, 정릉사 등 평양 인근의 사찰을 둘러본 김소장은 "전통 문양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



단청 안료뿐 아니라 전통 기와 지원도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지역 사찰 건물은 한국 전쟁 때 불탄 건물을 복원해 놓은 것이 많았는데, 경제적 여건 때문이었지만 대부분 콘크리트로 복원한 것이 특징. 반면 성불사 응진전은 남북한을 통틀어 10여 개밖에

수성 페인트로 문양 칠... 단청 안료 등 지원 시급

히 인상적인 것은 고구려 사찰인 광법사와 정릉사의 단청 문양.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문양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한다. 김소장은 그러나 "단청 안료 공급이 안 돼 수성 페인트로 문양을 칠다 보니 색깔 자체도 이상하고 전통 문양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전체적인 건축미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단청 안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소장은 "기와 교체해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전통 기와 공급이 안 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북한지역 사찰의 경우

남아 있지 않은 고려시대 건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세기에 조성된 보현사 천왕문 역시 당시 사찰 건축에 유행했던 양식이나 조각 수법은 북한 지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김소장은 "남북한 공동 학술조사 같은 것이 성사된다면 좋겠지만 북한과의 교류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지역주민에 다가가는 서비스 주력

개관 5돌 옥수복지관장 상덕스님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5년이었습니다." 26일로 개관 5주년을 맞는 서울 옥수복지관장 상덕 스님(사진)의 소감이다. 98년 3월 개관한 옥수복지관은 △결식아동 급식 제공 사업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보리수향 북카페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올해부터 옥수복지관은 7일 성동구내 저소득층을 위한 옥수복지센터를 개원하고 문수방과후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불교가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는 상덕 스님은 26일 10시 복지관에서 개관 5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풍물패 길놀이, 축하공연, 지역주민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되며 알뜰바자회도 26·27일 양일간 개최된다. (02)2282-1100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인재 길러 불교위상 높여야죠"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연 여익구 이사장



"불자 인재양성을 통해 정·관계 등 주류사회에서 불교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설립하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 수송동 동일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5일 오후 5시 민족문화정책연구소 개소식을 갖는 여익구 이사장(사진)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족문화정책연구소도 이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정지에 입문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정치적 식견을 높여주고 정치인으로서의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물론 불교문화정책도 연구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불교 현안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불교운동가로 활동했던 여익구씨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불교특위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연구소장은 여 이사장과 함께 민주당 불교특위에서 활동했던 하형기씨가 맡는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뇌허 김동화 박사 현창비 제막식

28일 경북 상주 남장사에서

현대 한국불교학의 초석을 다진 뇌허 김동화(1902~1980·사진) 박사의 현창비 제막식이 28일 오후 2시 박사의 묘소가 있는 경북 상주 남장사에서 열린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학자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건립했



대승불교대학 법음·법패 과정

대승불교대학(학장 원통 스님)은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불교의식을 배울 수 있는 법음·법패 과정을 개설하고 19일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법음법패 강사 혜담 스님을 비롯,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개강식에서 원통 스님은 "대승불교 사상의 근본은 바른 종교의식을 통한 신심과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문의 (053)622-0333



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김동화 박사가 조선인 차별이 심했던 일제 강점기 아래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이후 교편까지 잡았던 사실을 안 일본 리소(立正)대학 미토모 켄오(三友健孝) 교수가 일본에서 먼저 모금 운동을 벌였다. 이후 광우 스님(전 국비구니회장),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목정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총장 등 김동화 박사에게 불교학을 배운 한국의 제자들이 뜻을 모았다.

권형진 기자



성관 스님 출판기념 법회

성관 스님(수원 용화정사 주지)의 <서산 갈매기> 내 한손 합장의 뜻을 알라' 출판을 기념하는 법회가 14일 서울 마포동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열렸다. 원용종 종정 일공 스님, 총무원장 법륜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성관 스님은 "나의 마지막 서원으로 이 땅의 고단하고 슬픈 사람을 위하여 염불을 하겠다"고 말했다.

종교법인 광명사 설법대학 제 1기 학인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땅에 전래된 이래 불교는 우리 아시아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족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 왔습니다. 대한불교응변인협회가 이러한 민족불교의 의지와 신념을 응변으로 밝히고 실천해온지 3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후원과 협조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세계불교도법륜기 수여 전국응변대회」를 개최하여 600여개가 넘는 장관상과 3부요인 상이 시상되었고,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2001년부터 본 협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장표창을 비롯하여 1,000만 그루 식수의 나무를 적극후원하고 있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출된 수많은 연사들이 불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결속,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홍포와 문화장달의 역군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음은 본 협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응변인협회」는 드높은 사명 의식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의 추구와 시대변화에 걸맞는 교육철학의 정립을 위해 「설법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법대학에서는 삶과 생활의 지혜를 얻어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불교교리는 물론 응변, 설법, 서예, 동양화, 다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차적으로 일반교양의 교과 과정도 폭넓게 개설하여 전통적 교수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통한 참된 지성인의 인격도야를 위한 배움의 장에 불자님과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동참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7년(서기2003년) 3월

대한불교응변인협회 회장 표 자원 합장 (종교법인)설법대학 학장

- 모집기간 및 개강일**
 - 모집기간: 불기 2547년 3월 1일 ~ 3월 30일 까지
 - 개 강: 2003년 4월 12일(토) 오전 10:00
- 모집내용**
 - 정규반 50명
 - 초·중·고반 50명
 - 방송 성우반 20명
 - 서예 사군자반 20명
 - 정치 지망생반
 - 스님 특별반
 - 사친반
 - 디도반
- 지원자격**
 - 포교사 자격희망자
 - 설법을 요하는 스님
 - 대학 진학 특기장학생
 - 성우 지망생
 - 미술전공 희망자
 - 학원설립을 원하는 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사본
 - 증명사진 3매
 - 스님 추천서
- 강의일시 및 장소**
 - 일 시: 매주 토·일요일
 - 오전 10:00~12:00
 - 장 소: 광명사 1층 강의실

- 교수진(불교)**
 - 표지원 스님: 대한불교응변인 협회장, 광명사 주지, 서대문구 사업연합회장
 - 무인장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제2대 불교응변인 협회장
 - 표도철 스님: 초대불교응변인 협회장, 국제포교사 한미사 회장
- 교수진(서예·동양화)**
 - 지촌 허룡: (단원, 전통, 한국문화, 한국미술, 현대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심사위원역
 - 매창 안영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 교수진(원문·설법·경우)**
 - 김계원: KBS 성우
 - 이종래: 대한응변인 협회 전 회장, 응변부문 대통령상 수상자
 - 손은복: 다산정치학회 회장, 응변부문 대통령상 수상
 - 김수중: 대한불교응변인협회 사무총장, 전국응변대회 심사위원장
 - 유인배: 선거유세위원 4회연속 당조직 연설, 종교부위원장
- 교수진(진강·사진·의식)**
 - 김기원: 진주산업대 세생명광명회 대표
 - 이지란: 세계불교도(WFB,WFBY) 한국본부사무총장, 해동불교대학 교무처장 국제포교사
 - 이우탁: 대한민국 사진대전 특선, 저서: 나도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다.
 - 김삼경 박사: 자연의학 연구가, 스리랑카 벨라나 국립대학 명예교수, 미국 황제 동양 한의과 대학 명예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2동 44-498 설법대학
대한불교응변인협회 총본부 부설 Tel. 02)732-5509, 736-1895, 735-1896 / FAX. 02)723-4350